

아리스토텔레스의 善의 이데아(Idea)批判에 관한 考察

목 차

- | | |
|---------------------|----------------------------|
| 머리말 | III. 善이란 範疇(categoria)의 일종 |
| I.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 1. 갈라진 善의 이데아? |
| 학문적 방법론 | 2. 善 자체의 이데아는 영원한가? |
| 1. 변증론적 인식론 | IV. 善은 덕행이다 : |
| 2. 推象을 통한 진리 인식 | 正行(ortho-praxis) |
| II. 최고의 목적인 인간적 善 : | 맺는말 |
| 행복(eudaimonia) | |

머 리 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이다. 따라서 이 삶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주어진 것으로서의 삶 자체(das Leben an sich)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주어진 삶을 꾸려나가는 삶(das Leben für sich)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때문에 살아가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물음임에 틀림없다. 이런 물음에 대한 해답의 시도로 점철된 역사가 사상사라고 할 수 있다. 서양의 사상사는 크게 보아 플라톤(Platon)에게서 비롯된 觀念論(idealismus)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비롯된 實在論(realismus) 사이의 대결과 긴장의 역사라 할 수 있다.

플라톤은 주장하기를, 인간이 살아가는 궁극의 목적은 행복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善(agathon)을 추구해야한다. 이 선이야말로 이데아(Idea)중의 이데아이며 이데아 그 자체라는 것이다.¹⁾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의 목적이 행복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선 자체에 이데아가 있다는 플라톤의 주장에 비판적인 입장에 선다. 따라서 이 조그마한 글의 목적도 위 두사람의 이데아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좀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1) Platon, *Politeia*, 6, p. 508e.

도대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행복을 어떻게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우리는 이 작업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1권 4장을 중심으로 펼쳐나갈 것이다.²⁾

I.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적 방법론

사실 이데아론은 形而上學(metaphysica)과 認識論(epistemologia)의 주요 테마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倫理學의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윤리학도 자신의 고유한 학문적 근거를 일종의 방법론적 입장에서 볼 때 형이상학과 인식론을 떼어놓고는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³⁾ 사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도 그러하다.

그러면 이 글이 의도하는 것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먼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적 기본입장을 살펴 보려고한다.

1. 변증론적 인식론

플라톤은 자신의 학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변증론적 방법(dialektische Methode)을 사용한다. 플라톤에게는 변증론이란 자신의 사상적 적수인 소피스트들의 논박을 피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기술이다.

변증론의 첫 단계는 대상 또는 개념을 前提(hypothesis tou eidou)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제(hypothesis)란 의미는 경험과학에서 말하는 가정과는 다르다. 경험과학은 가정을 경험에 비추어서 입증한다. 그러나 개념 혹은 에이도스(Eidos)의 전제는 그 자신이 스스로 입증의 시금석이 되어 그 가정의 결과에 다르도록 가정을 전개해간다.⁴⁾

플라톤은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에 대항하여 진리의 원천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한다.

플라톤의 주장에 따르자면 감각적인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구체적인 세계인 객관적 감각 세계와 더불어 주관적인 감각 인식도 있다. 그런데 이 감각

2) 「니코마코스 윤리학」(*Ethica Nicomachea*)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적인 윤리학 저서로서 총 10권으로 되어 있다. 그의 아들 니코마코스가 편찬, 발행했다해서 오늘날 이름이 그렇게 불리운다.

3) G. Verbecke, "La Critique des Idées dans l'Éthique Eudémienne", in: *Untersuchungen zur Eudemischen Ethik*, Hg. v. P. Moraux u. D. Harlfinge, Berlin 1971, p. 135.

4) Platon, *Text zur Ideenlehre*, Hg. u. übers. v. H-G. Gadamer, Frankfurt/M 1978, 76; vgl. *Phaidon*, p. 98a-102a.

인식은 믿을 것이 못된다. 이것으로는 언제나 변하지 않고 동일한 인식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감각 인식은 진리가 아니다. 감각의 세계는 모든 것이 흘러가 버리는 생성과 부단한 운동의 세계이다. 만일 모든 현실적 실체가 흘러가 버린다면 이 감각 세계 안에는 진리도 학문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⁵⁾

그렇다면 진리는 어디에 있고 그 원천은 무엇인가? 플라톤은 진리의 원천은 오히려 영혼 안에서 찾아야한다고 한다. 원래 영혼은 보이지 않고 비물질적이며, 정신적이면서 이 세상을 초월하는 존재라고 한다. 영혼이 존재를 인식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오류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 까닭은 영혼은 언제나 자기 자신과 동일한 대상들의 영역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혼의 상태를 知識(episteme)이라 일컫는다.⁶⁾ 플라톤은 이것을 단순히 진리의 대상인 이데아(Idea)라고 한다. 그런데 이 지식은 인간 속에 거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일차적으로 우리의 감각 경험만으로는 획득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先在的 直觀에 그 자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모든 인식의 근본 개념은 先驗的(a priori)일 뿐만 아니라 一回的인면서 持續的이다. 단순히 ‘그 자체로 있는 것’(Ansichsein)은 무엇이나 각자의 원래 모습 개념에서 비롯된다. 이 원래 모습 개념의 세계가 이데아의 세계라고 한다. 따라서 감각 세계의 아름다움은 아름다움 그 자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본래와 똑같은 상태를 기억하고 회상하여(anamnesis) 거기에 참여하고자 한다(methexis). 이렇듯 감각 세계의 모든 것은 비감각적인 原像에서 비롯된 模像에 불과하므로, 감각 세계에서 인식한다는 것은 原像을 回憶하고 거기에 參與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 그러나 여기서 회억하고 참여한다함은 이데아가 감각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상으로 초월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아의 초월은 전체적이라기 보다는 다만 樣相的(modalis)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식론적인 의미에서 경험의 세계,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세계의 모든 인식은 類比的일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다(analogismus).⁸⁾ 이렇게 플라톤이 말하는 유비적 인식은 그 근거가 이데아 세계인 까닭에 현대적인 의미의 推象作用으로서의 類比와는 구별된다. 플라톤은 유비작용의 근거로 보

5) Platon, *Politeia*, p. 523f. ; *Theaitetos*, p. 185f.

6) Platon, *Phaidon*, p. 79d.

7) 같은 책, p. 73c-e.

8) 같은 책, p. 74c-75b ; 플라톤은 유비적 인식을 “창조주(Demiurgos)가 세상을 창조할 때 이데아를 바라보자, 모든 존재자가 영원한 원상에서 그 모습들이 만들어진 것”에 비유한다. *Timaios*, p. 29a ff.

고스(Logos)를 말한다.⁹⁾ 그래서 모든 인식은 ‘로고스와 더불어 생기는’ (anaton logon) 유비적(analogical) 인식이라는 것이다.¹⁰⁾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인식을 이데아의 세계로 고양하지 않고 감각적 직관 자체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 인식은 참된 앎이 아니요 臆見(doxa)일 뿐이다.¹¹⁾ 억견은 事態(Sachverhalt)의 참 모습을 직접 통찰을 할 수 없는 까닭에, 거기서 생기는 인식은 단순한 신념(pistis)에 불과하다.¹²⁾ 인간은 진리의 보증자이며 그 원천인 이데아의 세계가 스스로를 보여줄 때에만 참된 것을 얻어 만날 수 있다.

플라톤 이렇게 진리의 원천의 인식 단계와 관련하여 변증론(dialektike)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간단히 말하면, 정신이 참된 인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낮은 단계를 상호 지양하고 점점 더 높은 단계에로 고양한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어떠한 가시적이고 감각적인 도움없이 이데아의 참된 인식의 목표인 최고의 이데아를 직관한다. 이리하여 정신은 비로소 온갖 억견에서 해방되어 다른 모든 것도 참된 인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데아는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 가치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사유의 대상에 참됨을 주고, 인식하는 주체에게 인식능력을 주는 그 힘(최고 이데아, 필자 주)을 나는 善(agathon)의 이데아로 규정한다.”¹³⁾

결국 플라톤은 보편적인 것과 필연적인 것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감각적 인식에서 해방하고, 가차까지 그렇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참된 인식 자체가 인간을 선(Agathon, Bonum)에 이르게 할 수 있게된 셈이다.¹⁴⁾

2. 推象을 통한 진리 인식

학문은 가변적이고 감각적인 인식에 대응해서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인식 속에 존재한다고 플라톤은 믿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인식은 감각적인 개체 대상에서 해방된 이데아의 직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epagoge)의 개체 대상의 궁극적 근거에 따라서

9) logos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한마디로 의미를 고정시켜 우리말로 옮기는 것은 부리이다. 전통적으로 이 낱말을 이성(Vernunft), 판단(Urteil), 개념(Begriff), 정의(Definition), 근거(Grund), 관계(Verhältnis), 말씀(Wort) 등으로 해석되었다. 사실 logos는 이 모든 의미가 다 들어 있는 굉장히 함축적인 단어이다.

10) Platon, *Phaidon*, p. 103-195c.

11) Platon, *Politeia*, p. 510b ff.

12) J. Hirschberger, *Geschichte der Philosophie*(1. Bd.). Freiburg 12. Aufl. 1981, p. 88-97.

13) Platon, 앞의 책, p. 508d.

14) F. Copleston, *A History of Philosophy*(Bd. 1). Westminster/USA 1962, p. 176-184; J. Hirschberger, 앞의 책, p. 144.

인식된다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자면 인식의 변증론적 단계는 없다. 경험에서 주어진 것에서부터 보편적이고 통찰적인 원리가 귀납적으로 작업되고, 이것을 통해서 경험적 대상이 인식된다는 것이다.¹⁵⁾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물의 근거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 사물자신의 원리에 따라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무한의 연속은 인과율(causalitas)의 설명의 범위를 벗어나기에, 궁극적 원리(ultima principia)는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궁극적 원리에 대한 보편적 학문-형이상학-은 존재한다는 것이다.¹⁶⁾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식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추상작용(aphlein, abstractio)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추상작용은 表象 자체의 전개만을 말하는 순수 심리적 과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순수 심리적 과정으로서의 추상작용-로크(J. Locke)와 흄(D. Hume)이 말하는 -을 통해서 '개념'(conceptio)은 단순히 표상만을 파악하는 까닭에, 存在構造(structura entis)에 관해서는 이러한 개념은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다. 따라서 實體(substantia)와 本質(essentia)은 여기서 인식될 수 없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추상작용에서는 존재의 개념적 구조인 에이도스(eidos)와 모르페(morphe)가 바로 인식된다.¹⁷⁾ 개념은 실체를 파악하고 말해내는 것(logos tes ousias)이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2 실체(theutera ousia; eidos)에서 제1 실체(prota ousia; morphe)에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唯名論(nominalismus)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희박하다. 에이도스는 여전히 인식할 수 있는 것(gnorrhimoteron)이고 이성(nous)이 접촉한(thigein) 본성에 앞서는 것(proteron te physei)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형이상학이 가능하였다.¹⁸⁾

이러한 형이상학적 토대 위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전개해 나간다. 그는 이 윤리학에서 인간의 주어진 행위와 결단(proairesis)에서 출발해서 그 행위와 결단의 최고 목적을 묻고 다른 학문과 관련하여 이를 탐구한다.

15) Aristoteles, *Analytica posteriora B*, 19(100b 4); *Ethica Nicomachea* (EN) 6, 12(1143b-4).

16) Aristoteles, *Metaphysica* (Met.) 1, (983a 24-984b 23).

17) eidos도 다양한 의미를 지닌 함축어이다. 전통적으로 현상, 본성, 형상, 원형, 종(species), 이데아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우리는 플라톤의 '위상'으로서의 eidos와 구별하기 위해서 morphe(형상)의 의미로 이해하고자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eidos를 '완전한 실체의 원리'(principia completarum substantiarum)라 한다. Aristoteles, *Physica* 2, p. 194b 참조.

18) J. Hirschberger, 앞의 책, p. 180-181.

II. 최고의 목적인 인간적 선 : 행복(eudaimonia)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모두 선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 안에 이미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질(向目的性)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향목적성이 어떤 時俗的 倫理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무릇 선이란 모든 인간적 노력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인간들의 행동, 기술, 학문 등은 여러가지 목적을 추구하고 또 기실 다양한 목적을 그 결과로 드러낸다.” 목적이 다양하면 그에 따라 그 배열도 가능한 법!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목적론적의 철학적 입장에 따라 선을 모두가 추구하는 목적이라 규정한다.¹⁹⁾

인간이 추구해서 획득할 수 있는 선들 중에 최고의 선(akrotaton agathon)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eudaimonia)이라 단정한다. 따라서 행복이 인간의 최고 목적이다.²⁰⁾ 이러한 행복은 영혼의 작용이요, 그런 의미에서 본질상 하나의 미덕(arete)이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덕은 행복에 포섭된다. 그 까닭은 미덕은 칭찬받을 품성(habitus)²²⁾일 따름이지만, 행복이란 찬미받아 마땅할 어떤 것(enkomion)이기 때문이다.²³⁾

III. 선이란 範疇(categoria)의 일종

플라톤은 선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유일한 선의 이데아에로 환원된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의견을 달리한다. 그에 의하면 선이란 낱말은 존재라는 낱말처럼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주(categoria)의 의미 안에서 선은 파악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선이란 존재만큼이나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의 범주에 있어서는 神(theos)이나 이성에 대하여, 성질의 범주에 있어서는 모든 덕에 대하여, 數量의 범주에 있어서는 적당한 양에 대하여, 관계의 범주에 있어서는 유용한 것에 대하여, 시간의 범주에 있어서는 좋은 시기에 대하여, 장소의 범주에 있어서는 적당한 자리에 대하여, 그리고 그 밖에 이 비슷한 것에 대해서

19) Aristoteles, 「니코마코스 윤리학」(EN)1, 1(1094a) : vgl. *Physica* 2, p. 198a 25 - 199a 22 u.

Met. 8, p. 1050a 21 für aristotelische Teleologie

20) Aristoteles, EN.1, 2(1095a 19) : 같은 책 1.9(1099a 20).

21) 같은 책 1, 6(1098a 17)f.

22) 같은 책 1, 13(1103a 10)

23) 같은 책 1, 12(1102a)ff.

선이란 낱말이 술어로 사용된다), 분명히 그것은 모든 경우에 한결같이 들어맞는 어떤 유일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이러한 모든 범주에 대해서 술어로 사용될 수 없고 다만 오직 한가지 범주에 대해서만 술어로 사용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²⁴⁾

따라서 플라톤이 말하는 선 자체의 이데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는 부정되는 셈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의 이데아를 오직 일반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에서 선은 존재의 범주에서 유추할 수 없게 된다.

사실 플라톤이나 그의 추종자들은 類推(analog)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類(genus, Gattung)에 대한 存在論的 의미의 類推개념을 잘 몰랐던 것 같다.²⁵⁾

플라톤의 이데아는 형식적인 어떤 틀이나 기능이 아니라 완전무결하고 충만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어떤 범주라는 배타적인 數(Numerus)로 이데아를 취급할 수 없고 모든 개념의 무한한 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모든 인식, 선, 본질 따위는 말 그대로 선험적(a priori)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체계와는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는 어떤 목적에 합당하게 배열될 수 없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비판했던 것이다.²⁶⁾

1. 갈라진 善의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언어학적인 측면에서부터 비판하면서 더 나아가 플라톤의 분리되어 있는 이데아의 존재를 불필요한 중복개념이라 비판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사람 자체에 대해서나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개념 규정이 사용되는 것일진대, 그들의(플라톤 학파: 필자 주) 이른바 사물 자체(즉 이데아: 필자 주)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 자체가 각각의 사람은 다같이 사람인 점에서 아무런 차이도 없고 따라서 선 자체와 각각의 선도 선인 한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²⁷⁾

이러한 차이는 플라톤의 존재론적 사고방식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적 의

24) 같은 책 1, 4(1096a 17)ff.; vgl. *Met.*, p. 999a 6-9.

25) 유추(analog)개념에는 일차적인 것, 독립적인 것, 이차적인 것, 지시된 것 등이 있다. 예컨대 ‘존재’의 개념 속에 실체와 관계의 범주가 있는 것이 이것을 잘 말해 준다. 그렇기에 심지어 모순까지도 이데아(일차적인 것)가 제 1 실체보다 먼저 설정된다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Aristoteles, *Nikomachische Ethik*, Anmerkungen v. E. A. Schmidt, (Stuttgart 1969) p. 305.

26) Platon, *Phaidon*, p. 73c.; *Politeia*, p. 595c.

27) Aristoteles, 앞의 책 1, 4(1096b 1) ff.

미본적 사고방식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⁸⁾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공리적 성격을 지닌 두개의 명제에 근거하고 있다.

1. 사람 자체(auto ho estin anthros)의 이데아는 존재한다. 그래서 모두에게 이른바 X는 유효하다. 이 X가 사람 자체에 부여 또는 참여(methexis)할 때 그것이 사람인 것이다.²⁹⁾

2. 만일 X가 어떤 이데아에 부여한다면 이 X는 그 이데아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³⁰⁾

대부분의 이데아들은 類概念(Gattungsbegriff)이라 할 수 있는 소지는 여기서 충분히 발견된다.³¹⁾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유개념이란 어떤 유의 특징이 그에 속하는 개별자들 안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요소로 드러날 때, 바로 이 요소들을 통해서 정의되는 개념이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따르면 모든 X는 類(G)의 요소들이고($X=G$),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모든 X는 고유특성(E)이다($X=E$). 여기서 類(genus)와 種差(differentia)는 개체사물의 질료(hyle, materia)이다.

이미 언급한대로 플라톤은 무엇보다도 원상인 이데아에 대해서 인식론적인 입장에서 이해한다. 그에게 있어서는 경험적 대상들로 인해서 어떠한 개념도 그 특성상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그의 이데아론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당연히) 시간외적인 것, 즉 초시간적인 것으로서 감각세계와는 떨어져 있고 ‘불변의 존재’로 존재해야 하고 또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 이데아의 분리는 분명한 공격의 대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형상(eide; idea)은 본성 안에, 즉 존재자 안에 존재하지만, 플라톤에게는 존재자의 저편에 존재한다.³²⁾

2. 善 자체의 이데아는 영원한가?

플라톤의 이데아는 모든 존재자의 존재를 보장하는 마지막 근거로서 영원할 뿐 아니라 가장 순수하고 최고의 척도(기준)로서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이데아의 영원성에 이의를 제기한다.

“또 선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 자체를 더 선하다고 말할 수

28) I. Düring, *Aristoteles*, Heidelberg 1966, 285.

29) Platon, *Politeia*, p. 595a.

30) 같은 책, p. 597c.; *Timaios*, p. 31a.; *Parmenides*, p. 132b.

31) Aristoteles, *Met.* 11. p. 1073a 18.

32) I. Düring, 앞의 책 p. 285-6.; *Met.* 12, p. 1098b 21.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영원히 흰 것이 한나절 흰 것보다 더 희다고 할 수 없다.”³³⁾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유명한 태양의 비유를 통해서 궁극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의 이데아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 이데아 자체가, 존재라기보다는 저편에 있는(*epekeina tes ousias*) 상태이며, 능력과 품위에 있어서도 빼어난다.³⁴⁾ 따라서 플라톤에게 있어서 이데아는 ‘만물의 원인’(*hou heneka*; 원래의 뜻은 ‘그것으로 인해서’)이며, 존재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그 안에 근거를 만들어(分與: *methexis*) 준다. 즉 존재자의 근거에 언제나 이데아는 현존하는 것이다(*parousia*).³⁵⁾ 플라톤이 그의 저서 「뤼시스」(*Lysis*, 217)에서 원형으로서 흰 것이라 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말한 것이다. 어떤 것이 희다는 것은 흰 것 그 자체가 거기에 현존하고 있다는 것(*leukoteos parousia*)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선의 이데아를 비판하는 것도 바로 이 점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 같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선 자체의 이데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통적인 어떤 것으로서의 선이란 개체개념의 의미에서 볼 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³⁶⁾ 이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통박한다. 그러한 이데아가 설령 존재한다해도 그것이 인간 행동에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모든 선에 대하여 한결같이 술어가 될 수 있거나 다른 선으로부터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것은 인간으로서 미칠 수 있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직조공이나 목수가 이 선 자체를 앞으로서 얼마나 자신의 기술에 도움을 얻으며, 혹은 이데아를 본 사람이 그로써 얼마나 훌륭한 의사나 장군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자못 의심적인 일이다.”³⁷⁾ 우리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1권 4장에서 선 자체 이데아를 비판하는 동기를 알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심사는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실현되고 획득될 수 있는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³⁸⁾

이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의 이데아를 數로 보려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배격하는 대신에 피타고라스와 스페우시포스(*Speusippos*: 플라톤의 조카. 플라톤이 죽은 다음 그의 아카데미아를 이끌어 나갔음)의 설을 긍정한다.³⁹⁾ 그들이

33) Aristoteles, *EN*, 1, 4(1096b).

34) Platon, *Politeia*, p.505c ff.

35) Platon, *Phaidon*, p.100c ff.

36) Aristoteles, 앞의 책 1, 4(1096b 25).

37) 같은 책 1, 4(1096b 33-1097a 10).

38) 같은 책 (1096b 34).

39) 같은 책 (1096b 5)ff.

1이라는 수도 선의 계열에 넣어서 선을 보다 수궁할 수 있게끔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이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인간의 행동 목적과 일치하는 까닭이라고 긍정이유를 밝히고 있다.⁴⁰⁾

IV. 좋은 덕행이다: 正行(ortho-praxis)

이렇게 선의 자체 이데아는 존재의 저편에 있다는 플라톤의 사상과 결별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선도 구체적 경우와 관련을 두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그의 선의 정당성을 다른 방법으로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시도로서 분별력 또는 사려깊음(phronesis)이란 개념으로 그 선을 설명한다. 분별력은 윤리적으로 선한 행동의 원천이다. 사려깊은 사람으로 행동하는 자가 덕스런 행동을 하는 자이다.⁴¹⁾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성(orthos logos)⁴²⁾과 정당한中庸(mesotes)⁴³⁾이 요구된다.

德(arete)이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양 극단 사이의 중간에 있다. 예컨대 겁과 경솔 사이에 용기가 있고, 인색과 낭비 사이에 관대함이 있으며, 게으름과 탐욕 사이에 명예심에 있고, 비하와 거만 사이에 겸손이 있으며, 복비와 饒舌 사이에 정직이 있고, 무뚝뚝함과 익살 사이에 좋은 기분이 있으며, 호전성과 아첨 사이에 우정이 있으며, 햄릿의 우유부단과 돈키호테의 행동 사이에 극기가 있는 것이다.⁴⁴⁾

양 극단 사이에서 중용을 설정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덕이며, 무엇이 악덕인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중용의 개념은 일회적이며 창조적인데, 그것은 선형적이라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지식 또는 앎에 대해서 성찰함으로써 덕을 인식한다. 따라서 덕행인 선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 인간 행동 안에서 형성, 도야되는 것이다.⁴⁵⁾

그 이유는 “인간을 위한 선이란 결국 덕에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인 바 …… 덕이란 것이 하나 이상 있다고 하면 그 중의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한 것에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인 까닭이다. 그런데 그것은 ‘온 생애를 통한’ 것이어야 한다. 한마리의 제비가 날아온다고 봄이 오는 것이 아니요, 하루 아침에 여름이

40) 같은 책 1, 1(1094a).

41) 같은 책 6, 5(1140a 25)ff.

42) 같은 책 7(1141a).

43) 같은 책 2, 9(1109a 20)ff.

44) W. Durant, 「哲學 이야기」, 임현영 역, (서울: 동서문화사 1975), p. 102-3.

45) Aristoteles, 앞의 책 2, 3(1105a 26-1105b ff).

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인간이 행복하게 되는 것도 하루나 짧은 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다.”⁴⁶⁾

맺 는 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신의 율법에 종속되는 윤리를 논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차안의 삶을 위한 피안의 보상 같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 플라톤의 입장에서 볼 때 설령 내적으로는 아닐 망정 최소한 외적으로라도 윤리가 인정하는 피안의 신화들이 있어야 한다(가치 기준의 입장에서!).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치의 기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윤리적인 선에 대하여 설명하지도 않으면서 선을 그냥 새로이 규정한다. 이것은 이미 플라톤학파가 보증하고 있는 윤리적 기반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받아들이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짚어 볼 수도 있겠다. 아무튼 플라톤의 유산의 영향을 그가 최소한 받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그가 플라톤의 근본 이론인 이데아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하고 있다고 해도 말이다.

어쨌든 그가 주장하는 분별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유형은 오늘날 우리들 눈에도 지극히 현실적인 가치의 세계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비친다. 그리하여 그 윤리적인 선이 아직 실제적인 차원에서 실현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그 선은 실재적이다. 이것은 마치 푸른색이나 붉은색 자체가 그 본질을 현실적으로(realiter)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중용의 인간이 그냥 관조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한다.⁴⁷⁾

우리는 이제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은 통념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고 교양있는 현실적인 인간들을 위한 윤리학이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에 윤리학이란 영혼이 그 정신작용으로서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나 정의롭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을 즉시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필요한 학문이다. 즉 그의 윤리학은 행복을 위한 안내서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에서처럼 윤리학에서도 구체적인 경험과 현실을 더 밝혀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론을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1권 4장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46) 같은 책 1, 6(1098a 15)ff.

47) J. Hirschberger, 앞의 책, p. 231ff.